

24 장로

-아세르 인트레이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비범하고 심지어 놀라운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곧 “24 장로”라고 알려진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아와 “네 생물”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모인 리더들로 구성된 엘리트 그룹 같이 보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정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4 라는 수는 분명 12 의 2 배로, 우리에게 열두 지파와 예수아의 열두 사도를 연상시킵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면 부활 후 메시아 왕국에서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며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9:28**). 어쩌면 이 두 번째 12 역시 나머지 열방을 다스리는 지위를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보좌에 가깝게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운 위치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24 장로가 모두 여섯 번 언급되는데,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들이 아주 정확히 똑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계 4:10**). 수금과 거문고로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물론 엎드려서 합니다 (**5:8**). 그리고 또 다시 엎드려 경배합니다 (**5:14**). 그들은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7:11).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도 엎드려 경배합니다 (11:16).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앞서도 엎드려 경배합니다 (19:4).

그들의 겸손과 경배는 24 장로를 묘사하는 데에 있어 일차적인 공통분모이며, 사실 거의 유일하게 언급된 특징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 앞에 엎드려 있는 모세와 회막에 거하고 있는 여호수아, 양치기 소년으로 들에서 경배하던 다윗을 생각나게 합니다.

24 장로의 낮춤과 경배는 그들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사명과 영광, 권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선제 조건이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서 찾고 계시는 것이기도 할까요?

이스라엘과 필리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Alberto Fernandez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저희 필리핀 사이에는 거룩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1939 년에 마누엘 케손 Manuel Quezon 대통령은 “개방” 정책을 만들고 유럽에서 홀로코스트를 피해 도피한 유대인들이 마닐라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비자를 해주었습니다. 케손은 심지어 마리카나 Marikina 에 있는 그의 사유지를 내주어 피난민들을 수용하게 했습니다. 1,200 여 명의 유대인들이

필리핀으로 와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럽에서 문을 굳게 닫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만 명까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1947년 11월 29일 UN의 분할안 결의에 대한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 속에서 필리핀은 유대 국가 건설에 찬성 투표를 한 마지막 나라였고, 그 찬성표로 2/3의 과반수를 만들었습니다. 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외교관 팀 한 명이 화장실에서 필리핀 대표를 발견하고 그 결정적 한 표를 얻어내기 위해 복도까지 그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셋째, 1973년 옴 키푸르 전쟁 동안 이스라엘은 러시아가 이집트에 “지대공 미사일”을 공급한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공기가 부족했는데, 미국은 러시아와의 긴장관계 악화 위험 때문에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란은 샤 팔라비 Shah Pahlavi 왕의 통치 하에 있었기에 미국 공군기지가 이란에 있었습니다.

그 기지 내의 한 미국 항공 하청업체가 이란 항공 산업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600명이 넘는 필리핀 항공정비사들을 고용했었습니다. 이 어려운 전쟁의 중대한 순간 동안 다른 모든 인력은 차출되어 가고 필리핀 노동자들만 남아 보잘것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모든 미국 항공기 로고 위에 다윗의 별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군이 전쟁을 이기는 데에 일조했던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이 이스라엘 편에 섰던 것 때문에 필리핀에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창 12:3**).

중국의 돌파

-아리엘 블루멘탈



지난 두 주 동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는 둘 사이의 관계에서 확실한 돌파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 장푸형 형제의 간증을 통해 전해 드렸듯, 중국의 부흥은 1920년대 첫 번째 무리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백 투 예루살렘”의 비전을 받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에 핍박 받는 “지하” 교회 안에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면서 똑 같은 예루살렘 비전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최근의 컨퍼런스와 회의들 가운데 몇몇 중국 리더들은 거의 100년 된 이 비전이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비전의 한 부분에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기도와 전도의 결과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사이의 화해를 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중요한 모임에서는 이집트계 아랍인 신자가 앞으로 나와 겸손히 메시아닉 형제들에게 영적으로 “결혼”하고자 하는 뜻을 표했습니다. 아세르가 앞으로 나와 그를 안았고, 모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세르와 아리엘은 메시아닉 공동체를 대표하여 저희의 교만과 배반—예슈아를 배반하고 저희의 아랍 형제자매들을 배반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중국인들과 아랍인들, 유대인들, 모든 나라에서 온 이들이 모두 같이하는 강력한 증보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약 한 시간 반 동안 이 자연적인 기도의 풀어짐이 계속되었고, 저희는 악의 강력과 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간증이 중국과 아랍 교회로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저희는 11월 10-13일 예루살렘에서 있을 큰 “822 콜 집회”를 기대하면서 그때 큰 영적 전환이 있을 것을 느낍니다 (822Call.org). 기도 중에 여러 참석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한 구절이 **에베소서 3:10**입니다 -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